



#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 HPAI 바이러스 철새에 의한 것으로 잠정 결론 국내와 일본의 바이러스형 동일

정부는 지난 16일 국내에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바이러스 유형에 대해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바이러스는 지난 2003년과 2006년 때의 AI 바이러스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검역원은 시가 발생한 전북 김제·정읍, 전남 영암, 충남 논산, 경기 평택 지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도 확인했으며,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2003년, 2006년과 같이 철새에 의한 유입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역원은 최근 일본 아키다현과 홋카이도에서 죽은 백조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와 우리나라의 AI 바이러스의 유전자형도 동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감염경로가 철새라는데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2003년에 시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에는 다양한 감염원이 거론되었다. 철새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 사료곡물 수입, 수입축산물, 동남아 여행객 등이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이 돌면서 잠정적으로 철새에 의한 전파에 무게를 두었으며, 2006년에는 중국 칭하이주와 같은 형의 바이러스가 전국 발생지역 및 철새는 물론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철새에 의한 유입을 기정 사실화 하였다. 따라서 정부에는 11월부터 2월말까지 시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해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벌여 왔으며, 3월을 넘기면서 이제는 시로부터 벗어났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번 발생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앞으로의 시방역 대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겨울철만이 아닌 4계절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20°C가 넘는 시기에도 바이러스가 사멸되지 않고 전파되고 있는 것은 고온에도 강한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오리에서는 거의 폐사가 없었던 기존의 이론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폐사를 동반한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토착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볼 때 ND와 같은 개념으로 간주해 백신정책을 신중

히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역원에서는 이번에도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철새는 겨울철새뿐 만 아니라 여름철새도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양계인들은 불안에 떨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양계인은 물론 국민들이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감염원과 전파경로를 파악해 차후 시가 발생하더라도 안심하고 양계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무분별한 과장보도 양계인 두 번 죽인다 언론이 자발적으로 소비촉진에 앞장서야

시 발생 이후 정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및 언론의 행태가 수위를 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는 ‘올 시 인체감염 치사율 높다’, ‘시 인체감염 안전지대 아니다’, ‘발등의 불, 확인된 시 인체감염 위험성’, ‘시 무풍은 유비무환의 결과’ 등 시에 대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다. 정부의 안전하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기사까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한 사병이 살처분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폐렴증세로 오열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앰블런스를 출동시켜 병원에 격리시키고 시 의심환자로 분류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결국 단순 폐렴으로 판정이 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모든 언론에서는 ‘시 첫 감염환자 발생’이라고 대서특필 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시 발생지역에서 출하된 닭과 오리에 대해서 조리해 먹지 말도록 전국 시군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서울 광진구에 시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한때 광진구 보건소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는 후문이다. 또한 ‘시 대유행시 70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5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상시나리오가 감사원에 보고된 사실도 밝혀졌고, 가금류에 접근하지 말고 새의 분변도 밟지 말라고 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기사화되면서 가금업계를 과거 2003년 발생때 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에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소비홍보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농가들을 위해 전국 수매 및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언론매체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소비를 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언론이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일을 확대보도하고 이러한 정보 아닌 정보를 뒤에서 제공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지난 16일 본회를 중심으로 가금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은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전국에서 1,000여명이 모여 '질병관리본부' 규탄 집회를 가진 바 있다. 시위도중 한 양계업자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하면서 시위가 극에 달하기까지 하였다.

과거에도 언론이 양계산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을 담당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까지 양계업계에 피해를 가져온 만큼 그 이상의 보답을 위해서도 언론이 앞장서 소비촉진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

### 일부 치킨 체인점 가격 올려 소비 악영향 치킨업체 고통분담 차원에서 10~20% 내려야

국내 전반적으로 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양계업계는 AI 발생에 따른 여파로 소비가 크게 떨어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이 AI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유명 치킨 체인점이 잇따라 치킨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반축을 사고 있다. BBQ, 교촌치킨의 일부 대리점들은 최근들어 치킨 가격을 1,000원씩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 1마리가 1만원 하던 시대는 이미 찾아보기 힘들고 그 동안 13,000~15,000원에 판매되었는데 최대 16,000~17,000원 짜리 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비자는 “그동안 AI 발생으로 꼭 참아오다 모처럼 치킨을 시켰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1,000원을 더 달라”고 했으며, “치킨 1마리가 16,000원이라는데 어디 비싸서 먹겠느냐”하는 반응이다.

사실 올해 초에도 치킨업체 대부분은 치킨 가격을 인상했다. 이유는 후라이드 치킨을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 식용유, 빵가루 등 기타 부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본회에서 닭고기 소비를 살리기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치킨 가격을 10~20% 정도 낮추어 판매하자는 의견을 치킨 업계에 피력하기도 하였다. 현재 산지 생닭 가격은 kg당 1,340원이다. 보통 1.8kg짜리 닭을 출하하기 때문에 생닭 한 마리에 2,412원임을 알 수 있다. 도계비, 운송·보관비를 계산한다면 치킨집에 도착하는 닭 한 마리 가격은 순수 원자재 가격 개념으로 약 3,500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치킨업계에서는 유통비, 인건비, 부재료비, 매장 임대비 등을 감안하면 1,600원 이상의 가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AI 발생으로 실제 생계가격은 1,340원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치킨 가격을 올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치킨외식산업계는 손해를 보아서 안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높아 오히려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면 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로 전가된다. 닭고기를 먹는 국민들의 대부분이 서민들이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되찾아 오기 위해 치킨외식업계에서 가격을 낮추어 함께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계**